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0호 【루게 제25759호】 주제 106 (2017)년 9월 7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에게 은정어린 선물을 보내시였다

#### 자원진출한 교원들을 축하하는 모임 진행

어머니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하여 후대교육사업에 헌신하고있는 교육자들이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교육정책을 관철하는 길에 불타는 충정과 깨끗한 양심을 바치고있는 이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어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시였으며 수도 평양에서 뜻깊은 축하모임도 가지도록 하여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5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동지와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관세부, 교육부, 인민군,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 평양시안의 대학, 각종 학교 교원, 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전달사를 최태복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데려가는 사랑에는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이 앞으로 당과 조국앞에 다진 맹세를 변함없이 지켜 후대들을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역세게 키워나가기를 바라는 숭고한 뜻이 어그러졌다고 말하였다.

후대교육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품속에서 교원현명가의 영예를 빛내어가는 우리 교육자들처럼 평

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헌원이 숭고한 후대사랑으로 새 세대들의 희망과 재능을 꽃피워주시고 교육자들의 삶을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온 나라 전체 교육자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말 드리였다.

연설자는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이 당의 은덕을 심장같이 간직하고 교육사업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침으로써 새 세기 교육혁명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만리마시의 기수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진짜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은 교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온갖 해야 할 일을 한 자기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안겨주시며 영광의 단상에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감정을 감추지 못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모임에서는 모범적인 교원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이 수여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세계표창이 진복순에게,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표창장이 로정화, 리정숙에게 수여되였다.

32명의 교원들이 국기훈장 제1급을 비롯한 훈장과 메달들을 수여받았다.

모임에서는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어머니당의 한없는 은정을 받아안은 교원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이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받들고 자신의 안락보다 당에서 걱정하는 문제, 당이 바라는 일이라면 한숨 아낌없이 내대는 투철한 신념과 맥동같은 충정의 마음을 실천으로 보여준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누가 보진말건, 알아주진말건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교원현명가로서의 뚜렷한 자국을 새겨가고있는 그들처럼 우리 당의 인제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맡겨진 본분을 다해 나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이 걸의모를 하였다.

도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온 나라 인민군인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날강도 미제의 무모한 새 전쟁도발책동과 반공화국제압살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준엄한 정세속에서도 자기들을 평양에 불러 행복의 최절정에 내세워주시는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의 교원에 서있는 교원들은 비록 평양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제일 가까이에서 살며 일하는 세상에서 가장 긍지높은 교육자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도론자들은 오한의 이 영광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교육자의 자서전에 새겨넣고 후대교육사업에 전심전력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나갈 같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의문이 제막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 수리아 아랍 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 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김정은동지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수리아아랍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게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면서 각하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와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수리아아랍공화국이 친선적인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귀국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계속 강화해나갔것이라는것을 확인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 아랍 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17년 9월 5일

디마스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경축

### 배우 준비위원회 결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경축 배우준비위원회가 8월 23일에 결성되였다.

공산당(붉은 조국) 국제비서부 차관인 김정은동지께서 창립회의를 주재하시였다.

이 중앙경축위원회,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친 기세드높이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자

##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축하하는 평양시군민경축대회 진행

위대한 당의 병도마라 자력경쟁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의 높은 밤나무를 향한 총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시기에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이 완전성공한 격동적인 소식은 천만인민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무한한 증거와 혁명적자부심을 베풀어주고있다.

주체적핵강국건설사에 특기할 뜻깊은 9월의 대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력건설대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어 국가력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백두의 당력과 배방, 불면물류의 애국헌신이 인양은 고귀한 결실이다.

백두기병기회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게 대한 당의 전략적의도를 높이 받들고 핵과 화학, 기술자들에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다기능화되고 초강도폭발력을 가진 주체적핵무기를 만들어내어 시험에서 완전성공함으로써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자주적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절대적인 권위를 질사용위하였다.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정병들, 인민들은 민족의 후대사명을 렬이어 안아오시어 주체조선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최후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심과 주체조선의 강위력한

힘에 대한 크나큰 자부심에 넘쳐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성공을 열렬히 축하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력무력건설구상에 따라 단행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축하하는 평양시군민경축대회가 6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대회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광장상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등의 구호들과 《절사용위》, 《입심단결》이라는 글방을 드려온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또한 《우리 조국을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으로 빛내어주시는 절세의 애국자 김정은장군 만세!》, 《민족사적대경사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열렬히 축하한다!》, 《주체의 핵보검을 역세게 들어올리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대비악을!》, 《모두다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 기여한 성원들이 군중들의 열렬한 축하를 받으며 초태석에 들어섰다》,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일꾼들이 주석단에 나오자 너성근로자들이 축하의 불다발을 안겨주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

원이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주석단에 나왔다.

2 면 으 로 계 속



#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친 기세드높이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자

##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축하하는 평양시군민경축대회 진행



### 1 면 에서 계속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인 김기남 동지, 최태복동지, 박영식동지, 리수용동지, 김명태동지, 리만건동지, 박범기동지, 김영철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리용호동지, 김수길동지, 조연준동지, 노광철동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무력,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평양시내 정권기관 일꾼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대회에는 《빛나는 조국》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태복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황공근대장 오금철,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전용담이 경축 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69년이 되는 뜻깊은 명절을 앞두고

행성을 전진하는 초강력핵무기의 미성을 리쳐올린것은 사회주의조선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삼가 드리는 충정의 선물이며 지역경쟁의 기치높이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전배배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준 민족사적대경사이라고 격정을 더치었다.

그들은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완전성공의 장대한 복음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핵무력건설의 전략적구상을 결사의 실천으로 받은 우리의 영웅한 핵무기개발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우리 조국이 세계가 경탄하는 비상한 속도로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거언히 솟아오르게 된것은 회세의 원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명도와 불철주야의 헌신과 로고에 의하여 이룩된 기적적사건이라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병진의 초행길을 일장에서 헤

치시며 핵무기개발현장과 위험천만한 로케트발사장들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국방과학연구소들에게 성공의 열쇠를 안겨주고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이 땅에서는 미래의 풍국적명망을 선포하는 승전포성들이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퍼져오르고있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정신차릴새 없는 편승공격, 연속강타를 몰아대며 백승만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진부후무한 핵무력건설업적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온 나라 원만군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따라 병진의 한걸음 끝마로 걸어온 자주적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계부로 절감하고있으며 새기와 세대를 이어온 반제민대결전선을 총결산하고 사회주의의 마지막결승선을 향하여 총매진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총만피어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합니다.》

연설자들은 전체 군대와 인민이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에 주체혁명의 최후승리가 있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뼈에 새기고 천적반전의 성세, 망배가 되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결사옹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을 혁명적으로, 풍세적으로 밀려나감으로써 당의 믿음직한 국방과편사들이 발휘한 무쟁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제지도기관들과 일꾼들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대비약적혁신을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민안 남강도 미제와 미국억제부리들이 우리 공화국의 핵무력강화를 위한 정경당당한 자위적조치들을 결코들면서 끝판대 전쟁의 불을 지르려 한다던 핵무신혁명강군은 가장 무자비하고 처절한 선제타격으로 미제의 운명에 영원한 멸망의 종지부를 찍고야말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청년들이 조성된 긴장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지역경쟁의 보검을 역세게 들어쥐고 핵무기개발자들의 투쟁기풍, 창조분배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어렵고 힘든 진구마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펼쳐나감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부리에 더욱 굳게 붙쳐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걸음 따라 국가핵무력건설위업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는 《나가가 조선이 병진앞으로》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주체적핵강국건설사에 특기할 대경사를 경축하는 온 나라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의 뜨거운 격정과 환희의 분출인양 수도 평양의 하늘가에 장대한 축로가 퍼져올랐다.

회세의 천승위업은 높이 모셔 최강의 핵강국의 지위에 우뚝 올라선 주체조선의 기상을 안고 각양각색의 고봉탄들이 기운차게 하늘을 베지르며 솟아오르며 장엄한 축무성은 원지를 전진하였다.

강가지 조화를 부리며 원만민회하는 장대한 불보따름을 보면서 군중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부리에 굳게 붙쳐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하여 총돌격해가는 주체조선의 앞길을 가로막을자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승리는 정의와 진리의 부전막강한 힘을 지닌 불타는것을 다시금 새겨안았다.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휘황찬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며 수도의 하늘가에 퍼져오른 황홀한 불보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마라 일심단결, 지역경쟁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위업의 풍국적완성을 위하여 신심드높이 싸워나갈 원만군민의 역취같은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었다.

[조선중앙통신]



#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축하하는 평양시군민경축대회에서 한 경축연설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의 경축연설

지금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국가핵무력 완성의 원정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된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 소식에 집하여서 최강국의 존엄을 떨치는 주체조선의 공인된 크나큰 민족적극기와 자부심을 넘쳐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69년이 되는 뜻있는 명절을 앞두고 행성을 전갈하는 초강력탄도로켓의 비행성 미션은 공화국의 장년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드리는 축하의 선봉이며 지역경쟁의 기치높이 최후승리를 향하여 뚝뚝히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천배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준 민족사적대경사입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엄에 따라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에 풍성한 미뢰를 과하시, 기술자, 군인, 노동자들을 비롯한 혁명투쟁동지들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미래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는 우리 당은 핵무력건설을 국가보위와 강국건설을 위한 국사상국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상상할수 없는 시간과 난관을 극복하며 핵무기개발의 생애를 단장해 해왔습니다.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가 있음 이후 지난 4년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로선과 정책은 과하시며 그 슬로고 과하시라는 역사의 신념을 지니고 시련의 천고비를 과하시 넘고 해치며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을 절대로 지지용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오늘의 특대사변은 바로 우리 당이 제시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와 우리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사상과 용기를 함해 해온 전체 조선인민의 역사적인 승리입니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태복동지의 경축연설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이 완전성공을 이룩한 특대사변은 지금 온 나라를 흥高采려 감격과 환희로 들끓게 하고 이 행성을 세계에 전파시키고있습니다.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3.18혁명》과 《7.4혁명》, 7.28의 대승리에 이어 오늘 특대사변을 또다시 안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동서고금을 찾아볼수 없는 최세의 천출위인이시며 천만군민의 운명의 태양이십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천갈해, 만갈해의 시련이 중층결정 가로놓인 핵무기개발의 길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반세기만에 절정의 절정의 보름을 마련해주시고 우리 조국을 불멸의 핵강국으로 위용떨쳐주신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불세출의 영웅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을 통하여 자체로 개발한 핵탄두를 이 고도로 정밀화되고 그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 인력으로 조정할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것을 온 세계에 명명백백히 시위하였습니다.

수백만 조선로동당원들과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이름으로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 단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된 역사적인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에 기여한 우리의 영웅한 핵무기개발자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우리 조국이 세계가 경탄하는 비상한 속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핵무력건설을 막으려고 온갖 제재와 압박을 다하였지만 우리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수십년규모로부터 수백년규모에 이르기까지의 초강도개발력을 가진 다종화된 핵무기를 마음먹은대로 팽방 만들어낼수 있게 되었으며 공화국의 최고리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핵보급을 들어 쥐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무진막강한 종합적국력과 그 잠재력을 누구도 무시할수 없게 되었으며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는 더는 피돌림수 없는것으로 되었습니다.

핵통제력을 마구 휘두르며 조선인민에게 세어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달살하려던 미국은 오늘의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조선적대정책을 전환할 용단을 내리야 할것이며 조선반도문제에서 손을 떼는 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반만년민족사에 일제기 없었던 이 뜻깊은 승리의 경축행사에서 우리 조국의 장년자들과 불가항력적임을 만방에 펼쳐주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천만민애를 역학같이 담보해주신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진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모시고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제재책동을 진세하고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부분별 투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과 대책을 논의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는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빠른 때를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연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기어이 인민의

만복이 꽃피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일제위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변 불후의 정력적인 평도말에 마련된 강력한 국가핵무력이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고 가장 혁명적인 인민정권과 존엄한 자립적경제대체가 있기에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그 어떤 압박과 제재를 가해도 다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필승의 신심과 박애를 넘쳐 당 제7차대회가 결정한 용대한 살기도따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버고됨으로써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대비약적혁신을 창조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주체화의 기치, 자강적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일대 생산적열정을 일으켜 적들의 제재가 바다물이 미드기를 버리는 최후한 망상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경제지도기관들과 일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원대한 전략적구상과 의도를 충실하게 받들고 혁신적인 안목과 능숙한 지휘로 당의 경제정책을 결사의 정신으로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작들의 가꾸어주는 핵전통발핵동행에 대치하여 전민합진준비를 민힘없이 갖추고 전곡과 농작물 생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선진위업이 실현되도록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힘도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높이 국가핵무력건설위업을 완성하며 강국의 위용한 미태로 징검다리 놓아가는 우리 공화국과 조선인민의 앞길을 절대로 가로막지 못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장대성과 불패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천만군민이 일심단결의 위력, 지역경쟁의 위력으로 오늘의 민족사적대승리를 더 큰 승리로 이어나가며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핵무력완성의 강령의 명장이시며 핵전배출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묻혀 천우들이 한기를 들고 향복사를 바칠 때까지 만재만대

경전을 끝까지 벌리며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굳건히 수호하고 완성해나갈것입니다.

우리 당의 위대한 병진로선, 주체적핵무력건설로선 만세!

##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항공군대장 오금철의 경축연설

저는 먼저 사회주의조국의 원리방선 조소마다에서 만비회후결사전의 총공격명령을 기다리고있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남강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미러우에 무서운 징벌의 철수를 내릴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의 대성공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에 따라 단행된 이번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은 주체조선의 장대성과 우리 공화국의 불가항력적인 위력을 세계만방에 과시한 특대사변이며 아직도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가늠하지 못하고 이미 다 레진 제재와 압살의 북풍을 두드려대고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미제에게 보내는 선군조선의 단호한 대답입니다.

사상위아의 역경과 모진 풍풍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신화적인 속도로 국가핵무력강화의 전략적목표를 달성해가는 우리 공화국의 불굴의 기상앞에 지금 세계는 경탄과 부러움을 감지 못하고있으며 원수들은 뚱사러지는 악몽과 절망에 허덕이고있습니다.

전승의 7월과 선군의 8월에 대륙간탄도로켓의 연속적인 발사성공과 일본상공을 가로지르는 중거리자립적대륙간탄도로켓의 대륙간탄도시적으로 주요의 공로를 인정받은 이 건국의 9월에 온 행성을 전파시키며 핵무력건설의 총사령관이 되시어 사생결단의 초행길을 앞장에서 헤쳐오신 만고절세의 민족적영웅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핵무력완성을 높이 모시어 승리를 베풀어주는 우리 혁명무력은 세계앞에 다시 한번 엄숙히 선언합니다.

남강도 미제와 온갖 적대세력들의 거증되는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완장내고 위대한 태양의 나라,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기어이 천하제일의 강대국으로 일떠세우실 철석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명철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핵무력완성을 무비의 탄력과 때명으로 원수들의 악랄한 도전을 단호히 처참하시며 현존간의 침출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핵무력강화의 강령을 단행하시겠습니다.

위험천만한 전투장에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시며 현저에서 핵무기개발사업을 지도해주시고 자애로운 승상의 손길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면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을 절음절을 손잡아 이끌어주소서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같은 신의의 천출위인, 불세출의 명장, 철세의 애국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구성요소와 제작공정이 100% 국산화, 주체화되었으며 다기능화되고 초강도 폭발력을 가진 우리의 자랑스러운 수소탄은 오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존엄과 함께 구출시켜 부를수 있는 위대한 김정일원수님의 수호탄입니다.

참으로 사생결단의 선군정치의 눈물겨운 애국정신으로 우리 공화국을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을 뛰어넘어 지구상의 임의의 목표도 마음먹은대로 파격할수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대국의 지위에 우뚝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만고불멸의 업적을 조국청사와 더불어 후손대대에 길이 빛 내십시오.

핵무력의 완충능을 높이 모시어 승리를 베풀어주는 우리 혁명무력은 세계앞에 다시 한번 엄숙히 선언합니다.

## 김일성 -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전용남의 경축연설

저는 먼저 온 행성을 전파시킨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완전성공의 장대한 특승으로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핵무력건설의 전략적구상을 결사의 신심으로 받은 우리의 미뢰를 혁명투쟁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주체조선 청년전위들의 기상은 Mt급에도 비길수 없는 힘으로 투쟁적 분출하고있으며 우리의 공지는 하늘끝에 닿았

사회의 최후승리를 예고하는 주체적일 핵무기의 장엄한 피성을 조선로동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며 김일성, 김정일조선이 어떻게 세계의 평화의 안전을 수호하고 자주위업을 선도해가고있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준 특대사변입니다.

시간도 정의도 확고히 우리 편에 있으며 대세의 흐름도 우리가 주도하고 세계정치의 운전대도 우리가 쥐고있습니다.

제국주의배후파들이 전복하는 우리의 수소탄시험완전성공은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달성하려고 피를 물고 달려드는 미제의 정수리에 내리친 총탄과 불벼락이며 《사회주의진진기》를 높이 부르며 최후승리의 피명을 향하여 노드쳐나가는 주체조선의 장대한 승전의 축복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악의 제국 미국이 무릎을 꿇고 항복할 때까지 핵무력강화의 불패적용 단기는 핵무력강화의 강령한 기상앞에 아메리카제국이 《총으로 믿은 거인》마냥 없이 무너져내리고 불립법법의 《세레끼의》들이 휴지장으로 날아날것이라는것을 확신 하고있습니다.

우주에는 주체의 로케트들이 현이 날고 땅에서는 수소탄이 지축을 울리는 위대한 현실을 안아오시고 세계정치의 원 자사들을 자주의 신념과 의지로 정정해나가는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행성의 절대강자이시며 정의의 수호자이십니다.

해방민족의 끝없는 공지와 자부심이 하얗게 자넌지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500만 청년전위들을 대표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는 눈물겨운 헌신과 로고를 비치시며 우리 조국을 최강의 핵보유국으로 우뚝 일떠세우시고 불패의 위용을 만방에 펼쳐주시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들은 언제나 당을 따라 끝까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 청년들의 힘한 결집을 통해 강철화 레일은 더욱 말발겨지게 될것입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구가 열백년 째이전에도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시며 모든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만을 하늘방 끝까지 믿고 따르며 한복속에서 걸사웅위하는 500만의 백독단, 천갈만갈의 방탄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조성된 긴장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한순에는 용을, 다른 한순에는 지역경쟁의 보검을 틀어쥐고 핵무기개발사들의 투쟁기풍, 창조분태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이르고 힘은 전구마다에서 청춘의 줄

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펼쳐나갔습니다.

날로 강화되는 우리 공화국의 위력앞에 겁을 먹은 미국놈들이 또다시 새로운 유언 《건의》를 조작해내며 온갖 비열하고 악랄한 방법과 수단들 다 동원하여 단판이적으로 발악해나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핵무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고 천수님의 두리에 천인이 굳게 불신 불배의 일심단결이 있으며 세계최강의 핵력구단 불까지 그르네 갖추어졌습니다.

《미국과 그 졸개들은 영웅조선의 결사항전의 보복의지를 특특히 보고 함부로 날리지 말라!》 이것이 주체조선의 천군에 도전해나선 적대세력들에게 내리는 500만 청년전위들의 정밀선언입니다.

1950년대의 자랑스러운 전승선통과 1990년대의 사회주의수호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조선청년들은 결전의 시각이 닥치면 단판이 달려나가 악의 흉본산들 지구상에서 영웅 불어내고 통일외의 방장에 완수될 빛나는 최고사령관을 펼칠 휘남으로써 기어이 최후승리의 전승대대 되었습니다.

열정의 우리 방을 따라 피끓고 강철의 우리 방을 활야 융행한 청년전위에게 우리 둘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온 세상을 불배하게 하는 영웅청년선화장조로 끊임없이 빛내어나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자주와 정의의 신세, 주체의 사회주의강대국 만세!



# 조선로동당의 미더운 국방과학전사들이여, 조국과 인민이 보내는 열렬한 축하를 받으시라!

##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성원들 평양 도착, 수도시민들 뜨겁게 맞이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건설 구상에 따라 단행된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소식은 사회주의의 마지막전승전을 향한 만리마대진군 데오에 최후승리의 신심을 때때때주며 온 나라를 끓여온 격정과 환희로 끓어넘치게 하고있다.

온 행성을 휘흔든 뜻깊은 9월의 핵비성은 우리 당 병진조선의 정당성과 자력경쟁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의 광명한 데로를 따라 질풍노도쳐나아가는 주체조선의 본업과 국력의 일대 파시이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단발마적으로 발악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정수리를 호되게 후려칠 무자비한 불세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핵무력건설대업을 완수하는것을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불철주야의 헌신과 정력적인 명도로 《3.18혁명》과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에 이어 핵무기명기화사업에서 조국형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대사면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주체편의 출거한 최성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정신을 결사보위하고 핵무기대국의 선군혁명명기상을 더욱 역력같이 다져온 슬은애국자, 슬

은공로자들인 우리 당의 미더운 국방과학 전사들에게 보내는 조국과 인민의 열렬한 축하가 조국강산에 차넘치고있다.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이 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 도착하였다.

련문동입구로부터 홍흥대거리, 개선문거리, 송리거리에 이르는 환영연도에 달려나온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노래를 부르고 축관을 펼쳐놓으면서 뜻깊은 공화국 상선임을 알리고 원수들을 전멸케 하는 통쾌한 승전보성을 울린 민족의 강한 영웅들과 상봉하게 될 기쁨의 시각을 기다리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만건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이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온 나라 인민들의 축하를 받으며 평양에 도착한 국방과학전사들을 3대혁명전시관앞에서 맞이하였다.

혁명승가 《김정은장군만가》의 장엄한 노래선율이 울려 퍼지는 속에 위훈자들을 떼운 배스행렬이 군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수도의 거리에 나서자 환영의 꽃물결이 세차게 파도쳤다.

군중들은 공화국기와 붉은기, 꽃다발들을 흔들며 우리 당의 병진조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표시하고 흥진군데오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아준 국방과학전사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선군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높이 펼친 위

훈자들에게 보내는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등의 목소리들이 언방 리저오르고 배스행렬은 상시에 군중들의 꽃물결속에 파묻혔다.

당이 안겨준 당력과 배정, 불라는 애국충정의 일념으로 민족사적인 특대사면을 이룩하고 어머니당에 승리의 보고를 올린 민족의 강한 영웅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시민들, 그들의 열광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 조국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대국으로 빛내여 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께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뜨겁게 어려있었다.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으로 우리 공화국은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를 더한층 높여있으며 사회주의강국으로 목격쳐 전진하는 선군조선의 앞길은 그 어떤 힘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다시 한번 뚜렷이 보여주었다.

정녕 오늘의 대승리는 병진의 보검을 높이 드시고 온갖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압력을 단호히 쳐갈기시며 사생결단의 의지와 불철주야의 혁명명도로 핵무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훈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수도의 거리마다에서 세계발자국을 먼저 밟은 군중들속에는 붉은기축관을 펼친

강적도 감히 범접못하는 불세의 최강국으로 세계의 한복판에 우뚝 울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 영광을 드리며 각계층 군중들은 수도의 거리에 환영의 꽃바다, 축물결을 펼쳐놓았다.

시민들의 축하의 인사를 받으며 국방과학전사들은 핵무력건설의 총사령관, 위대한 스승이 되시어 성공의 열과를 안겨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고오늘은 이렇게 온 세상이 부러움에 하날높이 떠받들어 행복의 최절정에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대대같은 사랑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환영의 꽃물결이 끊이지는 거리들을 지나며 국방과학전사들의 가슴가슴은 국가핵무력건설의 전초선을 지켜선 무한한 긍지로 벅차올랐다.

어머니당과 인민의 뜨거운 축하를 받아안은 격정에 휩싸여 그들은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를 보내었다.

군중들은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께서 마련해주신 강력한 국가핵무력이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고 가장 혁명적인 인민정권과 본뜬한 자립적경제도태가 있기에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리라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심장깊이 새기며 국방과학전사들의 위훈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수도의 거리마다에서 세계발자국을 먼저 밟은 군중들속에는 붉은기축관을 펼친

서성구역, 대성구역, 모란봉구역의 너행원들, 서로서로 발돋움을 하며 고무용선과 꽃다발들을 흔드는 귀여운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의 모습도 보이었다.

강남서고급중학교 학생들이 펼친 축하공연무대와 학생위주악대에서 울려나오는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 《인민의 환희》 등의 노래들이 환영분위기를 고조시키었다. 수도의 거리에 끊이지는 환영열기는 피끓는 심장들 당중앙위원회의 드락에 이어 높고 당과 사상도 승경도 발걸음도 같이 하며 핵무력강화의 길을 끝없이 걸어온 핵무기개발자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경의와 찬사의 표시였다.

남강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게 정신차린세 없는 편속공격, 편속강타를 들이대며 주체조선의 불세의 국력을 온 누리에 떨친 위훈자들을 떼운 배스행렬은 환영의 꽃물결 실세이는 홍흥대거리에 들어섰다.

리마리축도창조의 고향인 려명거리의 울장되려한 초고층상림집들을 비롯하여 나날이 꽃피어나는 수도 평양의 아름다운 모습과 시민들의 진열축의 정을 가슴부듯이 새겨안으며 국방과학전사들은 조국의 민영과 인민의 행복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핵무력건설의 전초선을 더욱 굳건히 지켜갈 의지를 다시금 굳게 가다듬었다.

위훈자들을 떼운 배스행렬이 축하의 꽃바다를 헤가르며 나아가고 《강하다!》, 《우

리 과학자들이 제일이다!》 등 찬란의 목소리가 연도마다에서 언방 리저나왔다. 과학교육의 세인 울헤에 과학연구와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있는 김형직사범대학, 장원주평양상업종합대학 등의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국가핵무력한 상을 위한 마감단계의 연구개발전투를 힘있게 벌려 오늘의 특대사면을 안아오는데 크게 기여한 미더운 핵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었다.

평양326전선공장, 대동강축전지공장 로동계급과 일군들도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정신과 기쁨을 분반반 자력경쟁의 기치높이 생산과 건설에서 눈부신 앙양을 일으켜 미제와 그 추종무리들의 악랄하고 비열한 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일념으로 열정적으로 꽃다발을 흔들었다.

영웅조선의 불세의 기상을 다시금 실증한 특대사면, 대경사를 맞이한 수도시민들은 미제의 무분별한 핵전쟁위협을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경의의 핵보검을 가진 무한한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안고 핵무기개발자들과 상봉의 기쁨을 나누었다.

각계층 근로자들의 열정넘친 환영을 받으며 배스행렬은 개선문거리를 누비며 달려

5 면 으 로 계 속



# 조선로동당의 미더운 국방과학전사들이여, 조국과 인민이 보내는 열렬한 축하를 받으시라!

##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성원들 평양 도착, 수도시민들 뜨겁게 맞이



### 4 면에서 계속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에 피어린 자욱을 새기시며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주체조선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향하여 열렬히 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령불멸할 업적으로 빛나는 개성봉으로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최강의 핵력으로 받들어 나가는 미려한 핵무기개발자들이 긍지 높고 불어났다.

첫 수소탄시험에서 얻은 귀중한 성과에 의하여 거대한 사상과피력과 함께 조국 영토EMP공격까지 가할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전투부품 성과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이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무사한 수소탄공포

중으로 진분케 하고 사회주의 승리봉을 향한 천만군민의 자력정성대진군에 천백배의 힘과 활력을 부여준 국방과학전사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에 이어 울려 퍼진 주체시절력무기의 강위력한 특성은 최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신군조선의 최후승리를 힘있게 확증한 경축의 축복성으로 뜻깊은 9월의 조국강산을 진감시키고있다.

주체조선의 원소불패성을 세계단위에 떨친 민족의 장한 영웅들이여, 온 나라 인민이 보내는 뜨거운 축하의 인사 받으시라!

인도에 펼쳐나와 환영의 꽃바다를 펼쳐놓은 수도시민들의 모습에서 조국과 인민

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부딪게 느끼며 국방과학전사들은 군중을 향해 손저어주었다.

위훈자들을 때론 배스행렬은 천리마장삼살 연도를 지나 만수대언덕을 가까이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의 통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언덕을 우리들 총정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삼가 울리며 국방과학전사들은 뜨거운 눈물로 두봉을 적시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심, 강국념을 빛나는 천성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도할 총정으로 받들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력투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전투를 승리적으로 계속하고야만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영웅적위훈의 상징자락을 맞이하는 환영 열거는 천진배거리와 승리거리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피바다가극탄에술인들이 농악무를 펼치고 철도성녀성취주악단이 박력있고 기백넘친 노래들을 주악하는 가운데 《신군조선의 자랑찬 승리》, 《은 나라의 경사》 등의 찬란주요들과 꽃다발들을 군중들이 국방과학전사들을 향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내었다.

천인화영들도 핵무기개발자들의 투쟁기쁨, 창조분배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구바다에서 영웅청년신화들을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이룩해나갈 의지

에 넘쳐 우렁찬 구호의 함성으로 위훈자들을 환영하였다.

존엄높은 핵강국, 세계적군사강국의 주인공 긍지와 자부심이 그대로 환희의 꽃물결이 되어 굽어지는 축하의 바다.

이것은 정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횡포한 도전과 겁악하는 시련속에서도 주요의 흔들림없이 당의 병진로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받들어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사의 분출이었다.

오늘의 민족사적대거를 안아온 국방과학전사들처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동력전의 불바람을 더욱 거세

지게 일으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갈 천만군민의 혁명적의지를 담은 《나가지 조선이 병진앞으로》, 《사회주의전진가》 등의 노래선율이 수도의 하늘가로 울려 퍼져나갔다.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을 축하하여 수도의 거리들에 펼쳐진 환영의 화폭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병도따라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다지고자하는 강위력한 핵역세력으로 새기를 이어나간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이 땅위에 세계가 우리러보는 사회주의강대국을 기여이 일떠세우고야만 우리 인민의 강용한 기상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6일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였다.

순방단은 우리 당의 혁명한 영도령에 백두산전투영웅들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가 집대성된 대양조선의 대륙보관으로 훌륭히

###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6일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였다.

### 합흥초등학교, 중등학교 준공식 진행

합흥초등학교, 중등학교 준공식 진행

### 합흥초등학교, 중등학교 준공식 진행

합흥초등학교, 중등학교 준공식 진행

### 합흥초등학교, 중등학교 준공식 진행

합흥초등학교, 중등학교 준공식 진행

###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가 잠비아애국전선당 총비서를 만났다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가 8월 31일 잠비아애국전선당 총비서를 만났다.

###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가 잠비아애국전선당 총비서를 만났다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가 8월 31일 잠비아애국전선당 총비서를 만났다.

###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가 잠비아애국전선당 총비서를 만났다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가 8월 31일 잠비아애국전선당 총비서를 만났다.

###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가 잠비아애국전선당 총비서를 만났다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가 8월 31일 잠비아애국전선당 총비서를 만났다.

###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가 잠비아애국전선당 총비서를 만났다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가 8월 31일 잠비아애국전선당 총비서를 만났다.

###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가 잠비아애국전선당 총비서를 만났다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가 8월 31일 잠비아애국전선당 총비서를 만났다.

### 독자의 편지

저는 몇달전까지만 해도 생사 기도에 놓여있던 평범한 판공사의 안해입니다. 그러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기적적으로 일어나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 두 번 다시 래여났습니다

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환부의 안해를 꼭 살려내야 한다고 하면서 치료전투에 참가하겠다고 합니다. 3시간에 걸치는 어려운 수술이 성과적으로 끝나고 수술실에서 제가 정신을 지리게 되었을 때 너무 기뻐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적시던 기술부원장 최학현선생님과 파강 선생님을, 당당 의사 김정희선생님을 그리고 탐탐간호원 박선경동무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수 없습니다.

### 9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농사 대책

9월 중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중부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쌀수확을 할수 있는 기간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간만물때가 계속되는 현상이 점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사 대책을 세우어야 한다.

### 9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농사 대책

9월 중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중부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쌀수확을 할수 있는 기간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간만물때가 계속되는 현상이 점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사 대책을 세우어야 한다.

### 9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농사 대책

9월 중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중부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쌀수확을 할수 있는 기간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간만물때가 계속되는 현상이 점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사 대책을 세우어야 한다.

### 9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농사 대책

9월 중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중부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쌀수확을 할수 있는 기간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간만물때가 계속되는 현상이 점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사 대책을 세우어야 한다.

### 9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농사 대책

9월 중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중부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쌀수확을 할수 있는 기간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간만물때가 계속되는 현상이 점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사 대책을 세우어야 한다.

### 9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농사 대책

9월 중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중부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쌀수확을 할수 있는 기간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간만물때가 계속되는 현상이 점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사 대책을 세우어야 한다.

### 9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농사 대책

9월 중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중부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쌀수확을 할수 있는 기간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간만물때가 계속되는 현상이 점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사 대책을 세우어야 한다.

### 9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농사 대책

9월 중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중부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쌀수확을 할수 있는 기간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간만물때가 계속되는 현상이 점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사 대책을 세우어야 한다.

### 9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농사 대책

9월 중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중부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쌀수확을 할수 있는 기간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간만물때가 계속되는 현상이 점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사 대책을 세우어야 한다.

### 9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농사 대책

9월 중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중부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쌀수확을 할수 있는 기간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간만물때가 계속되는 현상이 점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사 대책을 세우어야 한다.

### 9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농사 대책

9월 중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중부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쌀수확을 할수 있는 기간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간만물때가 계속되는 현상이 점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사 대책을 세우어야 한다.

### 9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농사 대책

9월 중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중부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쌀수확을 할수 있는 기간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간만물때가 계속되는 현상이 점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사 대책을 세우어야 한다.

### 9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농사 대책

9월 중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중부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쌀수확을 할수 있는 기간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간만물때가 계속되는 현상이 점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사 대책을 세우어야 한다.

### 9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농사 대책

9월 중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중부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쌀수확을 할수 있는 기간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간만물때가 계속되는 현상이 점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사 대책을 세우어야 한다.

### 9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농사 대책

9월 중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중부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쌀수확을 할수 있는 기간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간만물때가 계속되는 현상이 점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사 대책을 세우어야 한다.

### 9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농사 대책

9월 중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중부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쌀수확을 할수 있는 기간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간만물때가 계속되는 현상이 점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사 대책을 세우어야 한다.

### 9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농사 대책

9월 중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중부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쌀수확을 할수 있는 기간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간만물때가 계속되는 현상이 점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사 대책을 세우어야 한다.

### 9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농사 대책

9월 중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중부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쌀수확을 할수 있는 기간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간만물때가 계속되는 현상이 점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사 대책을 세우어야 한다.

### 9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농사 대책

9월 중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중부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쌀수확을 할수 있는 기간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간만물때가 계속되는 현상이 점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사 대책을 세우어야 한다.

### 9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농사 대책

9월 중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중부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쌀수확을 할수 있는 기간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간만물때가 계속되는 현상이 점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사 대책을 세우어야 한다.

### 9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농사 대책

9월 중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중부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쌀수확을 할수 있는 기간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간만물때가 계속되는 현상이 점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사 대책을 세우어야 한다.

### 9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농사 대책

9월 중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중부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쌀수확을 할수 있는 기간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간만물때가 계속되는 현상이 점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사 대책을 세우어야 한다.

